



# 우리는 가피 받을 일(행동)을 하고 있는가?

**오래전 토론장에서 “구원은 있는 것인가?” 라는 청중의 질문에 ..... 어느 성직자가 하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그는 좌중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일들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다.

그럼 **우리들은 가피 받을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불교는 나, 주인공을 찾고 있는데..... 주인공아, 성불하셨나요?

당신의 목표는 성불입니까? 성불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불이 아니고, **성불을 통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이익 되게 하지 못하는 성불은 성불이 아닙니다.

성불이란 것은 [아녹다라삼막삼보리]라는 [무상정등각]이라는 어려운 표현 쓰지 마시고 그냥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격체를 완성하신 분]이라고 -인격체를 완성하신 분이기때문에 가까이 중생이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행원보살로써 나아갑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절집에서는 비불교적인 행위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이미 변질이 되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천도재 지내고, 철야기도 한다고 밤새 불보살 명호 불러대고, 인등 방혀 놓고, 방생, 성지순례 등 무리지어 밖으로 치닫고 있으며, 삼재풀이, 삼재기도, 그에 따른 부적 등 이것 말고는 내놓을 만한 행사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천도재 지내고, 밤새 명호 불러보고, 부적 지니니 세상 근심사가 다 해결됐나요?

또 백중때는 법사 모시고 백중법문 하면서 입춘 전후해서 삼재에 따른 부적은 지니게 하면서도 **왜 부처님 삼재 법문은 하지 않는가?**  
물라서 그렇다면 불교사전 보고 하면 될 것을..... 왜 못하는가?

불교를 누가 어렵다고 얘기하는가?  
각종 경전에 어려운 언어, 문자가 있다고 어렵다고 하는가? 정보화 시대에 보기 편하고 읽기 편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는데.....

불교는 어려운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했던 도덕 바른생활과 다른 것이 없다.

예로 어른을 공경하려면 공경하면 되고, 술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인데..... 실천하지 않으니 어렵다고 얘기한다.

우리 인간이 제일 힘들게 자기 버릇 - 습기 고치는 것이다.  
이것을 고치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로 부터 지탄받고, 특히 지식인들로부터 멸시 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 하며, 자업자득이요, 자작자수라 했다.  
그래서 급생에 농사를 잘 지으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나? 유치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것이 모든 성인의 가르침이다.

## 성인의 출현하심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지, 조상이 어떻고.... 삼재가 들고, 날고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1) 2011년 5월 초에 잘 아는 스님이 부탁을 해 왔다. 부친이 서울 삼성 의료원에서 위암 팔기로 2달 시한부라는 것이다. 그럼 바로 데려오라고 하니 속가 형제들이 전부 기독교인이라 쓸데없는 짓이라고 전부 사기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 달여 시간이 흐르자, 그때서야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절에 환자를 데리고 왔길래 두 번 기도로 그는 소생을 했고, 약한 달 절에 머물면서 그냥 가면 안 된다며 그 당시 사찰을 건립 중에 있으므로 현장에 나가 청소라도 해서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부지런히 일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삼척)

2) 본 사찰에 다니는 신도가 하는 말이, 동생이 오래전에 목에 갑상선이 있었는데, 세월을 두고 수술하기를 여러 번 했었고, 이번에는 갑상선암이 크게 전이가 되어 마산 큰 병원에서 수술 예약 날짜를 잡아 놓았다고 했다. 수술을 앞두고 미리 스님께 기도를 받고 수술 일자에 맞추어 병원에 갔더니 암이 없어졌다고 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와 가정생활을 겸하고 있다. (거제)

3)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가 자궁에서 시작된 암세포가 임원, 퇴원을 2년 넘게 반복하면서 결국엔 4군데(자궁, 간, 폐, 유방)로 전이되자 병원은 급기야 이제는 힘들다고 하니 그 형제들이 스님한테 부탁해서 기도는 3일 받고, 21일 만에 병원에 가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더라고 함. 의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길래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함. 왜 병원이면 “절대 얘기하지도 말고 소문 내지 말라.”고 스님께서 일렀기 때문에..... (양평 양수리)

4) 스님으로부터 부탁이 왔다.  
목사 아들을 둔 68세 되신 분이 귀신이 보인다며 부엌칼을 마구 휘드룬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무서워서 생활을 못하겠다고 하길래 부탁한 스님과 같이 새벽 5시에 그 집에 가기로 하고, 대신 가족들이 그 자리에 와야 된다고 일러주고 그 집을 갔다. 가서 보니 생활가구가 온통 칼자국으로 엉망이었다. 가족들 눈을 보고 상담해 보니 곳을 비롯해 안해 본 것이 없었고, 베개 밑에 부적까지 넣어둔 걸 보고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었다. 자세히 얘기를 해 주고 기도를 하고는 아침 찬바람을 맞으며 그 집을 나왔다. 그때 환자의 키 큰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인천)

5) 정비공장을 하시는 신도가 부탁을 해 왔다.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이 한 달이 멀다 하고, 사고를 쳐서 수리를 하러 오는 고객인데, 본인 스스로 조심하는데도 자주 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절에



찾아 왔길래 앉기도 전에 그 사람의 눈을 보고는 5살 때 죽은 남자아이 (몸은 어떻게 생겼고..... 피부 색깔은 어떻고.....)를 찾아오라 하니 자기는 본가나 처가 할 것 없이 절대 5살때 죽은 남자아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돌아가세요.” 하니 돌아가는 표정이 좋지 않은 기색이었다. 그가 돌아가고 삼일이 지나자 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87년도에 본인 차에 5살 남자아이가 길에서 갑자기 뛰쳐나와 본인 차에 받혀 죽었다고 했다. 그때 보험 및 합의로 잘 해결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스님이 고향을 지르면서 “불자 맞습니까? 돈이면 인명을 얼마든지 죽여도 되느냐..... 당장 이 절에서 나가라.”고..

그 후 천도재를 지내고 나서 거사는 사고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 (서울 홍은동)

6)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학교가기를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며 상담을 청해 왔다.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으면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는 하루종일 혼자 지내면서도 누군가와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호자와 함께 절에 데리고 와서 우선 그 아이의 엄마와 상담을 했는데, 엄마부터 문제가 많길래 바른 수행자를 찾아 경전과 조사 어록을 통한 바른 수행 생활 할 것을 철저히 당부하고 나서 딸을 스님 상담실로 데려오게 했다. 문을 여는 순간 그 아이의 눈을 보시고는 “너, 학교가기 싫지.”하니 “네” 하는 겁니다. 다시 스님께서 “너 아이들 하고 같이 공부하는게 시시해 보이지.”하자 “네” 하니, 그때 스님께서 “이리와, 고개를 내밀어라.”하자, 아이는 순간 뒷걸음 치길래 뒤에 서있던 본 도량 학장 스님이 뒷머리를 쥐고는 스님 앞으로 쑥 내밀자, 스님이 손가락으로 머리를 톡치면서 “이젠, 됐다. 가도 된다.”하니 갑자기 그 아이가 하는 말 “엄마, 나 학교에 가고 싶어.”라고 하는 겁니다. 드문 예이지만 그 아이한테는 할아버지가 점신되었던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제발 바른 수행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거제)

7) 일이 있어 아는 스님 절에 점심공양이나 할 요량으로 들렀다.  
그 날은 신도들이 많이 와 있었다. 스님 방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 보니 키가 크고 건장한 스님이 누워 있는 것이었다. 낯선 스님이 일어나 들어오는데도 않는 소리만 내고 있길래 물어보니 아침에 일찍 왔는데 지금도 계속 아프다는 것이다. 주지스님 안내로 공양이 방으로 들어왔는데도 그는 미동도 않고 누워만 있었다. 공양을 마치고 같이 온 스님보고 자구책으로 민간요법을 썼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그때 같이 온 스님이 아무래도 기도를 해 주라고 세 번씩이나 간청도 하고, 누워 있는 스님이 안됐기도 해서 알았다고 하고선 남의 절이니 아무도 보지 못하게 방문을 다 닫으라고 하고는 5분 정도 기도를 끝내자 그 스님은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서는 그날 그 절의 일을 보고 갔다. (창원)

8) 오래전 알만한 대산사 지도도에 선 수련을 오래하였던 83세된 노보살님이 교통사고와 계단에서 뒤로 떨어져 대퇴부를 크게 다쳐 팔, 다리를 못 쓸 뿐만 아니라 아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 부탁을 받고 그날 석, 박 사과등을 모두 마친 나의 도반과 또 다른 동행인이 같이 집을 찾아 누워있는 상태에서 병문안을 여쭙고는 일행들에게는 각각 주문과 경을 독송케 하고, 노보살님한테는 입은 다물고 일념으로 무엇을 하라 하고, 기도를 시작하자 5분도 채 되기 전에 환자 스스로 팔을 들어 올려 큰 원을 그리면서 합장을 하고는 그 손으로 대퇴부를 주무르는 것이다. 그러기를 십 여분 하고는 기도를 마치고, 도반이 묻는다. “아니 꼼짝도 못하시는 분이 왜 갑자기 팔을 들어 원을 그리고 합장 후에 그 손으로 아픈 부위를 만졌느냐?”고 묻자, 보살 왈 “스님이 기도하자, 갑자기 전기가 온 몸에 흐르듯이 짜릿함을 느끼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이 그 쪽으로 가서 주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9) 기도를 하다 보면 바른 수행을 하였던 분들은 능례,소례자 간에 쉽게 교감이 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노보살님의 자녀중에 대학원까지 마친 조계종 스님이 한 분 있었고, 그 인연으로 지금 본 도량에서 학장 소임을 맡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점심으로 인한 신병 같은 경우는 그자의 눈을 보고 몸에 점신된 자가 몇 몇 살 때 죽은 남자, 여자, 몇 명인지 까지를 직관을 통해 단번에 정확히 알아낼 수

있어야 상대를 퇴치할 수 있다. 상대의 눈을 보는 것은 1초면 충분하다.  
그리고 난 후, 그를 보내기 위해 가까이 있는 이들은 되도록 돈이 들지 않는 기도를 시키고 있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음식을 하게 하여 천도재를 지내주고 있다.

## 법력에서 생기는 직관 능력이 없으면 절대 천도시킬 수 없다.

이외에도 이미 오래 전에 인연이 되어 백혈병, 희귀병 등을 앓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잘 살고 있으며, 단 병원에서 1%의 소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받아준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본 도량에서는 경전과 조사어록을 통한 --- 건축불사는 관심 없고, 교육불사만 고집하여 일체의 정법만을 실천하고 있으며, 부처님과 조사께서 극구 만류하신 비불교적 행위인 사주, 관상, 철학, 삼재풀이, 삼재기도, 부적, 방생(어류, 조류), 성지순례, 수험생 합격기도, 사업번창 기도, 돈 액수에 따른 큰등, 작은 등, 인등, 산신기도, 용왕기도 등은 일체 사절 하고 있으며, 방생도 물고기, 조류가 아닌 인간방생을 장려하고 있고, 성지순례 등은 철저히 배제하며, 다만 그 비용으로 수술비가 없어 삶의 희망을 잃은 이들을 위해 쓰라고 가르치고 있다.

부적 쓸 일, 삼재풀이 할 돈 있으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면 좋은 일 생길거라고.....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

기도는 불보살님의 가르침대로 공부하고 실천할 때 분명히 가피는 있습니다. 수행과 기도는 불보살님의 힘을 입기 보다는 주인공이 권능을 갖기 위해 꼭 경전의 말씀대로 바른 실천할 때 출, 재가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 권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 불자 여러분! 무수 영험 도량, 신통 도량 등에서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사례를 보고 직접 확인코자 하시는 분은 누구든 연락주시거나 왕림하시면 당사자의 연락처와 그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꼭 병원까지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장난전화와 호기심에 하는 전화는 일체 사양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러한 사례들이 방송국에 제보가 되어 TV 출연할 수도 있었으나, 소송이 수행에만 몰두코자 사양하였음.  
(소송은 술, 담배, 커피, 음료수 등은 일체 먹지도 않음.)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여명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519-3 (충해공원내)  
T 055)633-6555

\* 많은 글을 쓰고 싶으나, 재정 관계상이 지면밖에 허락이 안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이러한 글을 쓸 날이 있겠지요.